

UN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은 청소년 NGO '푸른나무재단'

2025년도 UN 청소년 대표단 뉴욕 UN 본부 제63차 본회의 참여자 모집

UN Youth Delegate Programme



CONTENTS

■ 인사말	1
■ 모집요강	2
1. 모집안내	3
2. 모집 대상 및 일정	4
3. 활동 혜택	5
4. 지원 방법	6
5. 합격자 등록 안내	6
6. 활동 안내	7
7. 안전 관리	7
8. 기타 안내 사항	8
■ 일정 및 프로그램	9
1. 대표단 전체 일정	10
2. 대표단 현지 일정	11
3. 2025년도 제63차 본회의	12
4. 관련기관 소개	13
■ 푸른나무재단 역대 UN 활동	14
1. 푸른나무재단 역대 UN 활동 하이라이트	15
2. 2024년도 UN 청소년 대표단 활동 사진 및 후기	20
3. 2023년도 UN 청소년 대표단 활동 사진 및 후기	25
4. 2022년도 UN 청소년 대표단 활동 사진 및 후기	28
■ 제출서류 양식	29
1. 지원서	30
2. 자기소개서	31
3. 2025년도 UN 청소년 대표단 서약서	33
4. 개인정보, 초상권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4

인사말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대한민국 최초로 학교폭력을 사회문제로 공론화하고 UN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지위를 부여받은 청소년 NGO입니다.

학교폭력이라는 단어조차 용인되지 않았던 시절부터 오직 청소년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녹록치 않은 사회 여건 속에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1995년 이후 푸른나무재단은 청소년 폭력 감소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사이버폭력이라는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유해 콘텐츠 역시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며, 개별 국가와 단체,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現)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現) 삼성호암상위원회
現) 서울평화상심사위원회
現) 용운장학재단 이사
現) 지속가능 미래 사회협력 네트워크 대표
前) 고려대학교 교육부총장
前) 한국사회학회 회장
前) 미국 유타주립대 사회학과 겸임교수
前) 정보문화포럼 의장
前) 세계한류학회 이사장·회장
前) Global Policy 편집위원
前) 재단법인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원장

푸른나무재단은 청소년 사이버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매년 UN경제사회이사회 본회의에 참석하며, 현재까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UN경제사회이사회 본회의에 서면성명문과 구두성명문이 채택되었고, 국제회담을 열어 세계시민들에게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는 시간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용기 있게 국제 사회에 나선 UN 청소년 대표단과 함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올해도 푸른나무재단은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비폭력 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청소년 여러분이 직접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나무재단 이사장 **박 경 성**

모집 요강

1

모집안내



푸른나무재단은 1995년 학교폭력 피해로 16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다시는 자신과 같은 아버지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치유를 위해 설립한 청소년 NGO입니다.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조차 금기시되던 설립 초기부터 학교폭력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공론화했고, 시민 47만 명 서명운동을 주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국 학교폭력 전문 상담 전화(1588-9128)를 개설·운영하고,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등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현장 프로그램을 보급했습니다. **2019년부터 한국 NGO 최초로 국제 아젠다를 다루는 UN 본회의에 매년 참석하여 학교 및 사이버폭력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고, 청소년 폭력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와 행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2월, 뉴욕 UN 본부에서 진행되는 UN 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 본회의에 참여하여 직접 목소리를 낼 청소년 대표단을 모집**합니다.

2

모집대상 및 일정

- ❑ 선발인원 : 5명 내외
- ❑ 활동내용 : 국내 활동(발대식·역량강화교육·그룹스터디·성과공유)
국외 활동(뉴욕 UN 본부 본회의 참가)
- ❑ 모집일정

구분	일정	비고
① 지원서 접수	2024.11.07.(목) ~ 11.28.(목)	* 이메일 접수(cybersoscenter@btf.or.kr)
② 서류합격자 발표	2024.12.04.(수)	* 푸른나무재단 홈페이지(btf.or.kr) 공지
③ 대면면접	2024.12.07.(토)	* 푸른나무재단 본부 (서초구 서초대로46길 88) * 소정의 교통비 지급 예정 * 요청 시 참석증 발급 가능
④ 합격자 발표	2024.12.12.(목)	* 푸른나무재단 홈페이지 공지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누적 평가
⑤ 합격자 등록기한	~ 2024.12.13.(금) 16:00까지	* 등록기간 내 참가비 미납, 여권 미제출 시 자동 합격 취소 (p. 6 참고) * 공고문에 안내된 계좌로 송금 필수
⑥ 추가합격자 발표	2024.12.16.(월)	* 합격자 취소 발생 시 추가 합격자 선발 예정(개별통보)
⑦ 추가합격자 등록기한	~ 2024.12.17(화) 16:00까지	

❑ 지원자격

필수자격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자
- 푸른나무재단의 활동에 동의하고 가치에 부합하는 자
-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등 폭력에 연루된 사실이 없으며 심신이 건강한 자
- 사회 및 조직과 타인에 대해 배려할 줄 아는 인성을 갖춘 자
- 타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이끌 수 있는 자
- 활동기간 전체 일정에 반드시 참여 가능한 자 (p.7 참고)
- 영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국제회의에 관심이 많은 자
- 해외출국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사항

-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트위터 등 홍보 활동 가능자
- 사진, 영상 촬영 및 편집 가능자
- 국제회의, 모의유엔, 해외봉사, 국제교류 등 참가 경험이 있는 자

※ 동점자 발생 시 지원서 제출 일시가 빠른 순서에 따라 합격자 선발

※ 최종 선발 인원은 적격자 심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 취소

3

활동혜택

구분	내용
UN 출입증 제공 (Grounds Pa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 대표자로서 회의 기간 중 뉴욕 UN본부 출입증 발급 제공 ○ 출입수속 및 자격심사를 통해 소수에게 발급되는 특별출입증
UN 본회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본회의 참석(개막식, 장관급/고위급회담, 시민사회포럼 등) ○ UN 본회의 기간 내 사이드이벤트 개최/운영 (또는 UN본부 로비 대관 캠페인 개최/운영)
수료증 및 표창장 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른나무재단 이사장 명의 활동 수료증 발급 ○ 활동 우수자 표창장 수여
네트워킹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 대사 등 고위급 연사, 국제기구 및 학계 대표 인사들과 네트워킹 ○ 현지 대학생 및 글로벌 임직원과의 네트워킹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분야 전문가 기본역량교육 ○ 현지 대학 탐방 및 대학생 미팅(뉴욕 또는 컬럼비아 대학교) ○ 현지 기업 탐방 및 글로벌 임직원 미팅
봉사활동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회의 기간 내 활동에 대한 자원봉사 시간 제공(VMS, 1365) ○ 봉사활동 시간은 본회의 기간 내 활동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약 2~30시간 이내 제공됨



※ 현지 또는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지원방법

구분	일정
제출서류	① 지원서 ② 자기소개서 ③ 서약서 ④ 개인정보·초상권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⑤ 증빙서류
제출방법	○ 푸른나무재단(www.btf.or.kr) 접속 ○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및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제출 ※제출 후 평일 기준 2일 이내 확인 메일 발송됨
제출처	○ 푸른나무재단 사이버SOS센터 이메일(cybersoscenter@btf.or.kr) — 메일제목 : 2025 UN 청소년 대표단_홍길동 — 파일명 : 2025 UN 청소년 대표단_홍길동
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①~④ 순번대로 취합한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메일제목 및 파일명 미준수 시 미접수 처리

※ 최종합격 후 ⑤증빙서류(재학증명서, 사회배려대상 증명서 등) 제출

5

합격자 등록 안내

구분	내용	
등록기간	○ 합격자 발표 다음날까지 : 2024.12.13.(금) 16:00까지 ※ 포기자 발생 시, 예비 합격자 순번으로 추가 합격자 개별 연락 예정	
참가비	참가자 자부담	총 1천만원
	전체 활동 포함 (사전, 현지, 사후)	○ 사전/사후활동 : 발대식/해단식 운영비, 교육비 등 ○ 현지 활동 : 왕복항공(국적기) 및 7박 9일 체재비, 비자(ESTA), 숙박(3~4성급), 통신(미국 티모바일), 식사, 보험(2억원), 교통, 멘토링, 문화탐방 등
등록방법	○ 입금방법 : 계좌입금 ○ 입금처 : 제일은행 / 245-20-039275 / 푸른나무재단 ○ 유의사항 : 등록 확인을 위해 입금자명은 반드시 신청자 명의로 입금	
환불규정	○ 100% 환불 : 입금 당일 ○ 50% 환불 : 2024.12.16(월)까지 ○ 환불 불가 : 2024.12.17(화)부터	

※ 본 재단의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올바른 인성과 국제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사전교육, 현지활동, 사후활동, 지도 및 안전관리를 포함하는 3개월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참가자 부담 하에 운영됩니다. 본 재단은 여행사가 아니기에 개별적인 비용 견적, 정산, 보고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6

활동안내

□ 주요활동

구분	내용
국내활동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활동, 뉴욕 현지 자료조사 활동 ○ UN 사이드이벤트(포럼) 개최 준비 활동 ○ 현지 활동 이후 수료식 준비 및 진행(조별 성과발표, 홍보 등)
국외활동 (뉴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욕 UN본부 제63차 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 본회의 참석 ○ UN 본부에서 개최되는 사이드이벤트(포럼) 개최

※ 2024년도 2월 62차 본회의 활동 UN 청소년 대표단 스케치 영상 (nal.la/RBX2r-)

□ 주요일정

구분	일정	장소
① 멘토 발대식	○ (대 면) 2024.12.21.(토) 10~18시	* 푸른나무재단 본부 (서초구 서초대로46길 88)
② 멘토-멘티 국내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면) 2024.12.27.(금) 10~17시 ○ (비대면) 2025.01.03.(금) 10~13시 ○ (대 면) 2025.01.10.(금) 10~17시 ○ (대 면) 2025.01.17.(금) 10~17시 ○ (비대면) 2025.01.24.(금) 10~13시 ○ (대 면) 2025.01.31.(금) 10~17시 	* 푸른나무재단 본부 (서초구 서초대로46길 88)
③ 국외활동	○ 2025.02.08(토) ~ 02.15(일)	* 미국 뉴욕 맨하탄
④ 수료식	○ 2025.03.01(토) 예정	* 푸른나무재단 본부 (서초구 서초대로46길 88)

※ 상기 모든 일정은 필수참여

7

안전관리

구분	내용
전문인력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른나무재단 연구원 전 일정 동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지도사, 현장체험학습안전지도사 국가자격증 보유 - 다년간 미국 뉴욕 UN 본부 본회의 참여 및 연설 경험 ○ UN 본부 출입 및 안전한 활동을 위한 관리 및 인솔
여행자보험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자보험 의무가입 ○ 롯데손해보험 표준플랜 한도 2억원, 상해 2,000만원 가입
비상연락망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티모바일(현지 대표통신사) 유심 제공 ○ 7박 9일 데이터무제한 및 현지통화 가능
교육 및 구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수칙 가이드 및 코로나19 감염병 방역관리 교육, 상비약 구비 ○ 뉴욕 영사관, 한국 대표부, 병원 등 위치 및 연락처 안내

구분		내용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정으로 인해 활동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반드시 공고문의 일정을 숙지 후 지원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 ○ 참가자 임의로 항공권 개별 업그레이드 및 좌석 변경, 숙박 장소 변경, 외부인 동행은 불가능합니다. ○ 여권은 합격자 등록기한에 제출해야 하므로 여권만료일 6개월 미만인 지원자는 재발급을 사전에 부탁드립니다. ○ 수료증은 국내 및 국외 활동을 모두 성실하게 참여한 자에게만 수여됩니다. ○ 활동 중이라도 지각, 결석 등 불성실할 경우 제명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부서 : 푸른나무재단 국제팀 ○ 문의방법 : 전화(070-5202-4032), 메일(cybersoscenter@btf.or.kr) 		
푸른 나무 재단	홈페이지	http://www.btf.or.kr	유튜브	www.youtube.com/푸른나무재단
	블로그	https://blog.naver.com/bakbht	트위터	https://twitter.com/btf_bluetree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btf.bluetree/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xexFxeV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btf_bluetree/		
	'24 기자회견	na1.la/Dqes_p "학교폭력 피해 고통 역대 최고치, 법적 분쟁의 온상이 된 교실"		
	'23 기자회견	na1.la/SzSg4L "갈수록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안전지대는 없다!"		
	'22 기자회견	na1.la/THxciv "사이버폭력 역대 최고치, 끊임없이 진화하는 학교폭력!"		
	'21 기자회견	na1.la/rX7BZ3 "학교폭력, 코로나 시대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푸른 코끼리	홈페이지	https://www.bepuco.or.kr	유튜브	www.youtube.com/푸른코끼리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bepuco	트위터	https://twitter.com/bepuco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be_puco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sksexb
	22' 푸코포럼	https://zrr.kr/kiLK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이버폭력, 그리고 소멸'		
	21' 푸코포럼	https://zrr.kr/7iQ7 '사이버폭력 백신, 푸른코끼리'		
	20' 푸코포럼	https://zrr.kr/t0GA '푸른코끼리, 사이버정글 속 온(溫)택트를 제안하다'		

일정 및 프로그램

1

대표단 전체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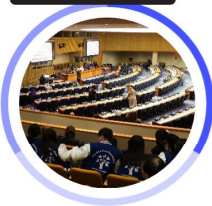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p>[사전준비] 연구 및 교육 (Research & Train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기간 : 2024.12.21.(토) ~ 2025.02.07.(금) ○ 활동장소 : 푸른나무재단 본부(서초동) ○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테이션 및 발대식 - <u>2024.12.21.(토) 10-18시</u> · 역량강화 교육 및 그룹 스터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한 사항 - '25 UN 본회의 주제에 관한 사항 - 사이드이벤트 개최 및 캠페인 준비 (사회자, 학생연사, 해외연사 섭외 등)
<p>[현지일정] 연설 및 활동 (Speech & Activ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기간 : 2025.02.08(토) ~ 02.16(일) / 7박9일 ○ 활동장소 : 미국 뉴욕 일대 ○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욕 UN 본부 본회의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시민사회포럼 참가 및 발언 - UN 사이드이벤트 개최, 운영, 발표 등 (또는 UN 본부 대관 후 캠페인 운영) - 각국 대사 및 정부 관계자 네트워킹 · 공공기관 방문(주유엔대표부 등) · 명문대 탐방 및 재학생 멘토링(뉴욕대 등) · 기업 탐방 및 직원 멘토링 · 문화탐방(월스트리트, 타임스퀘어 등)
<p>[사후활동] 확산 및 성과공유 (Spreading & Comple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기간 : 2025.02.17(월) ~ 03.01(토) ○ 활동장소 : 푸른나무재단 본부(서초동) ○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성과 기록 · 언론보도 및 인터뷰 준비 · 해단식 - <u>2025.03.01(토) 예정</u> (가족 및 지인 초대, 언론 초대 예정)

※ 모든 활동에 대한 참가 확인증 발급가능

2

대표단 현지 일정(안)

UN 뉴욕본부



본회의 참석

UN 총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본회의에 참석해 토론 및 대사 연설 참석



타기관 포럼 참석

본회의의 기간동안 진행되는 주유엔 대표부 및 국제NGO들의 세미나에 직접 참여 및 질의



국제인사 네트워킹

고위급 포럼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를 직접 관람 및 주요인사들(국제기구, 정부기관, 국제NGO 등)과 네트워킹



포럼 개최

포럼 공동개최 기획운영 및 직접 연설문 발표

국제 기구 & 현지 공공 기관 방문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정보통신과 관련된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UN의 산하 기구 방문 및 교육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지식재산권을 홍보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UN의 산하 기구 방문 및 교육



유엔개발계획(UN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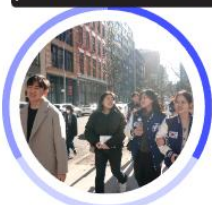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 기술자문, 훈련, 장비를 제공하는 UN 산하 기구 방문 및 교육



주유엔 대표부

청소년이 사회활동에 느끼는 한계점에 대한 논의와 일본의 학교 및 사이버폭력 현황 및 글로벌 고등학생-대학생 협력구조에 대한 간담회

기관방문 및 멘토링



뉴욕대학교(NYU)

뉴욕대학교 학부 한인학생회와 함께 캠퍼스 투어 및 대표단의 희망전공 및 진로에 따라 1:1 멘토링



뉴욕시청

뉴욕시청 소속의 청소년 공동체개발 부장 및 담당자들과 함께 디지털 전환이 청소년 폭력에 끼치는 영향 및 국제협력에 대한 간담회



주유엔 대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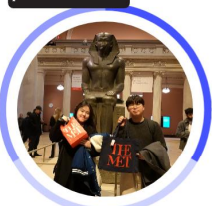
청소년이 사회활동에 느끼는 한계점에 대한 논의와 일본의 학교 및 사이버폭력 현황 및 글로벌 고등학생-대학생 협력구조에 대한 간담회



뉴욕주 하원의원

뉴욕주 첫 한국계 하원의원인 RON KIM과 미국의 청소년 폭력 현황 및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정치활동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간담회

문화체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세계 5대 미술관이자, 해마다 약 500만 명이 방문하는 뉴욕의 대표적인 미술관에서 반 고흐 초상화 관람!



9/11 추모 박물관

2001년에 발생한 테러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박물관으로, 대표단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곳!



타임스퀘어

해마다 1억명이 방문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대표적인 곳에서 기념품과 쇼핑을 즐기는 시간!



룩펠러 탑오브더락

유명한 사진 '초고층 빌딩 위에서의 점심식사'가 촬영되었던 곳을 가장 인기가 많은 야경 관람시간에 방문!

- 대표단 현지(뉴욕) 일정은 UN 공지 일정과 내용에 따라 변경됩니다.
- UN 본회의 세부 일정과 부대행사 공지는 회의가 임박했을 때 공지됩니다.
- UN 본부 이외 기관은 방문처의 승인 여부와 최종합격자들이 희망하는 방문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올해 방문 협의 중인 곳을 안내드립니다.

○ 2024년도 UN 청소년 대표단 활동내용

일정	내용	일정	내용
DAY 1. 출국 및 뉴욕대 멘토링	nal.la/gVL4Lz	DAY 6. 뉴욕 주 하원의원 미팅	nal.la/E-GAPa
DAY 2. UN 출입증 발급	nal.la/PQwKMb	DAY7. 뉴욕한국학교 방문	nal.la/NV2r9z
DAY 3. 장관급 포럼 참여	nal.la/Jt-mSn	DAY8. 문화 체험	nal.la/shOby4
DAY 4. 국제기구 전문가 미팅	nal.la/YNAO31	DAY9. 구두성명문 발표	nal.la/USgDK2
DAY 5. 사이드 이벤트 개최	nal.la/9Eebj_	DAY10. 문화 체험	nal.la/1pTTHY

○ 2024년도 하계 UN 청소년 대표단 활동내용

일정	내용	일정	내용
BEFORE. 사전 교육	nal.la/PKiVMz	DAY 4. 사이드이벤트 개최	nal.la/nRT6y8
DAY 1. 출국	nal.la/nh_Vjy	DAY 5. 국제기구 전문가 미팅	nal.la/c4a4_c
DAY 2. UN 본부 회의 참석	nal.la/Ag2rgB	DAY 6. 국제기구 전문가 미팅	nal.la/rx2INL
DAY 3. 뉴욕대 멘토링	nal.la/wAL3rH	AFTER. 수료식	nal.la/HvykKI

3

2025년도 제63차 본회의 정보

회의기간	○ 2025.02.10.(월) ~ 02.14.(금) *뉴욕 현지 기준
회의장소	○ 뉴욕 UN 본부 컨퍼런스룸 4 (본회의장)
회의주제	○ 연대 강화, 사회적 포용, 사회적 응집을 통한 사회개발 관련 코펜하겐 선언, 세계정상회의 행동계획, SDG의 이행 가속화
회의내용	○ 본회의 참석을 통해 UN 주요 아젠다 습득, 국제 정상과 네트워킹
참고링크	○ https://social.desa.un.org/csocd/63rd-session

4

관련기관 소개



UN 경제사회이사회 (United Nations ECOSOC)는 UN 총회의 권능 하에 UN 및 UN기구의 경제, 사회분야 업무를 조정하며 개발, 세계무역, 산업화, 자연자원, 인권, 여성지위, 인구, 사회복지, 과학기술, 범죄예방과 기타 경제·사회적 문제에 관해 권고하고 사업을 발의하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전 세계 193개국과 함께 매년 각 주제별 회의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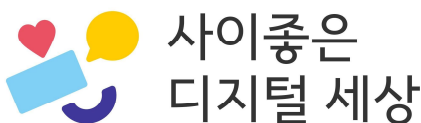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은 1865년 설립된 국제전신연합(International Telegraph Union)으로 149년 역사의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로서, 전기통신, 전파통신, 위성통신, 방송 등의 국제정보통신 분야를 총괄하는 전기통신 부문 전문기구입니다.



푸른나무재단은 1995년 학교폭력의 피해로 외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우리나라 최초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시민사회에 알리고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은 청소년 NGO입니다. 학교·사이버폭력예방 교육, 상담·지원, 분쟁조정, 실태조사 연구, 캠페인, 미래·진로 지도, 국제사업 등 다양한 청소년폭력 관련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국에 10개의 지부와 15개 직영 및 위탁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른코끼리는 전 세계 청소년 사이버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의 친사회적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사랑의열매-삼성-푸른나무재단'이 함께 하는 10년 중장기 사업입니다(2020-2029년). 푸른코끼리 사업은 크게 ▲예방교육 ▲상담치유 ▲예방문화 ▲학술연구 ▲플랫폼이라는 5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20만건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은 Born Digital 세대의 청소년들이 올바른 디지털 시민의식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카카옴팩트와 푸른나무재단이 협력하여 찾아가는 학교교육, 교사연수, 효과성 연구, 강사 운영 등 여러 사업을 지원합니다.

푸른나무재단 역대 UN 활동

1

푸른나무재단 역대 UN 활동 하이라이트

2024년도 하계 제12차 UN 고위급정치포럼(HLPF) 활동

사이드이벤트 개최	활동 리뷰 블로그	UN 관련 기사	활동 브이로그
			

푸른나무재단 사이드이벤트 기사보도

인천 고교생 19명 UN 본부서 청소년 대변

| 인천시교육청 뉴욕서 고위급 정치포럼 사이드 이벤트 개최

▲ 김주희 기자 | Ⓞ 입력 2024.07.12 | □ 8면 | ▶ 댓글 0



인천시교육청이 10일(현지시간) 뉴욕 UN본부에서 개최한 고위급 정치포럼 사이드 이벤트 포럼에 참석한 도성훈 교육감과 시교육청 소속 고등학생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은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UN) 본부에서 '디지털 시대 세계 빈곤 퇴치를 위한 파트너십'을 주제로 고위급 정치포럼(HLPF) 사이드 이벤트 포럼을 개최했다.

활동브이로그



성과공유회·수료식



활동스케치영상



2024년도 제62차 UN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 본회의 활동

사이드이벤트 개최	서면성명문 등재	구두성명문 연설	활동 리뷰 블로그
			

제62차 UN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 푸른나무재단 서면성명문 공식 등재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Dist.: General
18 November 2023
English only



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
Sixty-Second Session
5-14 February 2024
Follow-up to the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and the twenty-fourth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Priority Theme: "Fostering social development and social justice through social policies to accelerate progres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o achieve the overarching goal of poverty eradication".

Statement submitted by The Blue Tree Foundation,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he Secretary-General has received the following statement, which is being circula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36 and 37 of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 1996/31.

* The present statement is issued without formal editing.

21-16926 (E) 181121
2116926

Recycle  

E/CN.5/2022/NGO/26

Statement

Addressing the Fundamental Solution to Poverty through Expansion of Online Education on 'Social Digital Entrepreneurship'

The Blue Tree Foundation proposes the expansion of online education on 'Social Digital Entrepreneurship' to children and youth worldwide as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issue of poverty.

Global poverty is not decreasing easily. The amount of aid to developing countries continues to increase, but the effectiveness is lacking. Economic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in these countries do not necessarily follow. Instead, conflicts between humans, such as cyber violence, hatred, and war, are on the rise. These conflicts threaten the lives of the impoverished and make them even poorer.

While educational inequality is often cited as the cause of poverty, the reality is that many children in developing countries lack even the basic infrastructure to focus on proper academics. They often find themselves engaged in livelihoods, with insufficient physical time, a lack of dedicated study spaces, and a shortage of quality education and caring instructors. In essence, what these children need first is the resolution of the educational infrastructure issue that allows them to receive a complete education, rather than just educational content and devices.

The solution is online education utilizing digital technology. It allows for a much greater degree of freedom from temporal and spatial constraints, making it easier to connect with outstanding instructors. The costs of promoting and implementing online education are significantly lower compared to offline education. On the other hand, the added value is substantial. Global wealth is converging towards the digital-based big tech markets, encompassing AI, big data, autonomous driving, Chat GPT, and more, dominating nearly every sector, including the economy, society, culture, and the arts. Digital authority has become the new power. In the midst of this paradigm shift, 'digital thinking' is the essential skill currently needed to survive. During the COVID-19 period,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increased significantly, from 4.1 billion in 2019 (54% of the world's population) to 4.9 billion in 2021 (63% of the world's population). However, only a fraction of the global population possesses this ability to actively utilize digital thinking.

Therefore, it is now necessary to provide online education on 'Social Digital Entrepreneurship' to children worldwide. While traditional 'digital literacy' education only teaches digital proficiency, 'Social Digital Entrepreneurship' teaches managing with utilizing digital while cultivating pioneering spirit and civic consciousness. It is now crucial to provide practical assistance to break the cycle of poverty by ensuring that children do not get left behind, but rather take the lead in the global digital technology market that generates profit.

A 'social digital entrepreneur' refers to an individual who possesses both moral character and capability. Moral character denotes the ability to live and cooperate with others, while capability refers to the knowledge and skill required to thrive in a rapidly changing world. Those who possess both moral character and capability can generate both economic and social value. Pursuing economic development alone can perpetuate poverty for the disadvantaged and exacerbate social issues. Likewise, focusing solely on social development can make it challenging to obtain the resources and momentum necessary to ultimately address poverty issues. However, if the number of individuals with social digital entrepreneurial spirit continues to grow, it will enable a sustainable society, creating a virtuous cycle structure.


The Blue Tree Foundation has been consistently engaging in activities that bridge economic value of businesses and social values of civil society for global sustainability. Projects such as the youth cyber

2/3

21-16926

제62차 UN 본회의의 사이드이벤트 UNDESA 공식홈페이지 보도

푸른나무재단 사이드이벤트 기사 보도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Social Inclusion

Home About Us Social Development Summit Issues Intergovernmental Support Publications Partnerships News

United Nations Social Development Network Role of Youth in Digital Transformation: Towards Inclusive Growth and Social Justice


Role of Youth in Digital Transformation: Towards Inclusive Growth and Social Justice

Role of Youth In Digital Transformation: Towards Inclusive Growth And Social Justice

8th February 2024, UN Headquarters New York, CSocD62 Side Event organized by The Blue Tree Foundation (BTF) (first NGO established in Republic of Korea to prevent and eradicate school and cyber bullying) and the Permanent Mission of Republic of Korea explored how digital transformation can impact inclusive growth and equitable distribution with youth, discussed the role that youth can play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as the 'key to breaking the cycle of poverty', and policy measures for youth inclusion.

The moderator, Doyeon Lee (Youth Delegate of BTF) and speeches from Hye-ryoung Song (Minister Counsellor of the Mission of Korea), Gil-sung Park (Chairman of BTF), and Ignacio Socias (Direct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Family Development) marked the beginning. Keynote speech by Heena Myung (Chief Researcher of BTF) was followed,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youth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and the need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actively utilize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s a prototype for effective and collaborative resolutions".

In part one, Antonio Lopez (Executive Director of International Council of Social Welfare), Rong Zhang (Associate Commissioner of Department of Youth and Community Development of UNCTD), and Jungwon Kim (Youth Delegate of BTF) highlighted digital transformation as the key to inclusive growth and social justice. As speakers shared the impact of digital transformation on active social participation, and emphasized the direct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for social justice, Youth Delegate Kim stated the need for more "social digital entrepreneurs" that possess both virtue and capability, through education programs such as BTF's [E-pace, People, Quality, Ethics \(E-PQEE\)](#) program (sponsored by Samsung).



푸른나무재단, 주요엔대한민국대표부와 제62차 UN 경제사회이사회 사이드이벤트 공동개최

대한민국 최초 학교폭력 NGO 푸른나무재단은 유엔본부에서 사이버폭력, 학교폭력 관심 촉구 연설 시 국제기구, NGO, 청소년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회의 진행

주요문 7기7기, nuf@un.org | 등록 2024.02.14.09:08



* 푸른나무재단 제62차 UN 사이드이벤트, 학교폭력 NGO 푸른나무재단 주관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UN 경제사회이사회가 인정한 UN 특별협의지위 청소년 NGO로서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을 국제 사회에 공론화하기 위해 2월 5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뉴욕 UN본부에서 진행되는 제62차 UN 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 본회의(CSocD62)에 참여해 예정입니다.

2023년도 제61차 UN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 본회의 활동

사이드이벤트 개최



서면성명문 등재



구두성명문 연설



활동 리뷰 블로그



제61차 UN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 푸른나무재단 서면성명문 공식 등재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Dist.: General
16 November 2022
English only

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
Sixty-first Session
6-15 February 2023
Follow-up to the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and the twenty-fourth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Priority Theme: Creating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as a way of overcoming inequalities to accelerate the recovery from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tatement submitted by The Blue Tree Foundation and the European Youth Information and Counselling Agency (ERYIC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he Secretary-General has received the following statement, which is being circula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36 and 37 of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 1996/31.

* The present statement is issued without formal editing.

21-16926 (E) 181121
2116926



ECN.S/2022/NGO.26

Statement

Resolutions to bridge digital gap and digital dysfunction to create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The Blue Tree Foundation and the European Youth Information and Counselling Agency recognize the need for a system, international cooperation, education dissemination, and digital company obligations for youths suffering from digital dysfunction and digital gap that disrupt productive employment and the creation of decent work.

Digital technology, which has been developing at the fastest pace in human history during the 21st century, is the greatest opportunity and biggest threat to modern-day people. Over the past few years, the dependence and commercialization of digital technology have increased even more rapidly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United Nations warned of a significant increase in inflammatory hate speech and cybercrime as Internet usage increased during the pandemic; and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data of the increase in Internet users from 4.1 billion (54% of the world's population) in 2019 to 4.9 billion (63%) proves how much the Internet environment has spread in a short period.

As a result, both emerging and advanced countries are facing the dysfunction and division of digital technology that they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In particular, emerging countries are accelerating the vicious cycle of unemployment and poverty due to the serious digital divide. According to the Pew Research Center in the United States, advanced countries had higher smartphone ownership rates than emerging countries and were more likely to be owned by younger and more educated people. In other words, in the digital era, youth living in countries that lack digital technology, which directly affects economic growth, limit access to quality education as well. This situation causes mankind to lose existing jobs and allows only the higher-educated people using more advanced digital technology to survive, worsening the polarization.

Meanwhile, advanced countries are also frequently experiencing dysfunctions such as cyberbullying due to the proliferation of digital technology. According to the 2022 National Research on School Violence and Cyber Violence conducted by the Blue Tree Foundation, the victim rate of cyberbullying among Korean students has tripled from 5.3% in 2019 to 16.3% in 2020, and nearly doubled to 31.6% in 2021. The trauma and wounds caused by cyberbullying experienced at a young age are not quickly dissolved and linger as digital footprints, negatively affecting youth employment and economic activities. Those affected by cyberbullying are not able to follow the school curriculum due to mental trauma or necessary procedures such as counseling, treatment, and legal resolution, or suffer from depression, resulting in a loss of motivation and confidence for economic activities.

In addition, these problems have spread to general households, creating an unstable youth group. Over 1,800 young people from 46 countries participated in a brief survey on emotional wellbeing conducted by the European Youth Information and Counselling Agency in January 2021. The answers showed that young people, especially vulnerable youth, have experienced some of the most severe consequences of isolation, decreased education and job opportunities, and reduced leisure activities. The same study included interviews with 150 youth information and counselling professionals who reported an unprecedented increase in mental health issues and distress among young people reaching their services.

Meanwhile, several previous studies showed that the digital dysfunction phenomenon that occurred in advanced countries is appearing similarly in emerging countries, as digital civilization has gradually developed. In particular, India, which has the highest economic growth rate in the 21st century, is one of the countries with the highest rate of cyberbullying in the world, and is increasing every year. Similarly, more than half of South Africa's parents also say their children are victims of cyberbullying. However, these emerging countries with economic and educational level gaps

24

21.10926

국제사회복지대학연합회(IASSW), 푸른나무재단 사이드이벤트 뉴스레터 기사 보도



The resolution acknowledges some of the data on the aging population, current challenges (poverty, old age, lack of social connection), and new challenges (climate change, impacts of digital transformation). He also provided input on how Costa Rica has been an advocate for these issues for many years as well as how it has implemented many of its policies based on MIPPA. The former Head of the DESA Programme on Ageing provided some remarks on MIPPA and how the implementation to date is not sufficient. He stated that there must be an international consensus to make sure that MIPPA is well-implemented. He also pointed out that some of the current obstacles to full implementation are due to insufficient structures, lack of financial resources, and disinterest from the younger generation. The event continued with input from Turkey's Director General of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Elderly. She stated that there is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purpose of MIPPA and that many older individuals do not know that MIPPA can be used as an advocacy tool. She also pointed out that national reports on ageing might not always reflect the actual disparities in the population. She concluded her discussion with a call to action for member states to pursue a social justice approach. The event concluded with questions and discussion. For more information about MIPPA, please visit: <https://www.un.org/development/desa/ageing/mandated-plan-of-action-and-its-implementation.html>

Achieving Digital Well-being and Addressing Digital Inequality for Sustainable Employment and Decent Work of Youth



The side event was jointly hosted by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The Blue Tree Foundation (The Foundation for Preventing Youth Violence), and The European Youth Information and Counselling Agency (ERYICA). The event focused on the aspects of digital well-being that may affect the fu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all, with a special focus on youth, and the different ways to recover from COVID-19 in the post-pandemic era through the appropriate use of digital technology. The meeting started with opening remarks from Jong Ik Lee, Secretary General of The Blue Tree Foundation. The event was mostly led by young panelists. The first speaker was Erica Reina, Secretary Director of ERYICA. She started by addressing the nature of information and how it has changed over the past few years, specifically how information reliability has become harder to obtain. She provided information about how Covid-19 has impacted youth mental health and the importance of providing proper youth services. She also emphasized the different global views of mental health services and how countries treat mental health services globally. The co-founder and CEO of the Logout Organization, Boris Veler, provided some remarks about employment and quality jobs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He provided positive and negative insights into digital technology. The event continued with remarks from UN Youth Delegates of

the Blue Tree Foundation. The event provided good input on the intersectionality between well-being and technology. The event also discussed recommendations to address digital inequalities as well as how to achieve digital well-being post-pandemic. The event concluded with questions and discussion.

Civil Society Forum 2023 Emphasizes People-Centered and Rights Based Approaches



Each year, a forum organized b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s held as part of the Commission. The Forum was hosted jointly by UNDESA-DisD, the NGO Committee for Social Development, and the Friedrich-Ebert-Stiftung (FES) Foundation. The Vice Chair of the NGO Committee on Social Development, MaryAnn Dantuono, welcomed all participants and then emphasized how CSocD61 highlighted the need for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in the reduction of poverty and the achievement of the Agenda 2030 as well as emphasizing a human rights perspective and social dialogue. The event continued with remarks from the Chair of the NGO Committee for Social Development, the Bureau of CSocD Chair, the Under-Secretary General DESA, the Director of the Division of Inclusive Social Development at the UN/ DESA,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extreme poverty and human rights, the Director of the Friedrich Ebert Foundation (FES), and Executive Assistant of the NGO Committee for Social Development. The first thematic session, "Working Toward Concrete Solutions for Marginalized Young People Facing Unemployment," addressed systemic discrimination and how to create work opportunities. It also presented how

organizations have been promoting concrete innovative programs involving youth participation, education, and the well-being of youth drawing on their experiences. The thematic theme for the second session was "Rethinking the Dominant Economic Paradigm: Ensuring Social Protections and Just Transitions For the Changing World of Work". It focused on how to address employment protection through people-centered policies and rethinking global economic arrangements. The purpose of the session was to think through dominant economic paradigms and how to mediate the challenges caused by these paradigms. The forum concluded with summary remarks from Dr. Hy Oton, National Coordinator of the Worldwide Network Nigeria, and closing remarks from Lara Hicks, Executive Assistant of the NGO Committee on Social Development and Chair of the Civil Society For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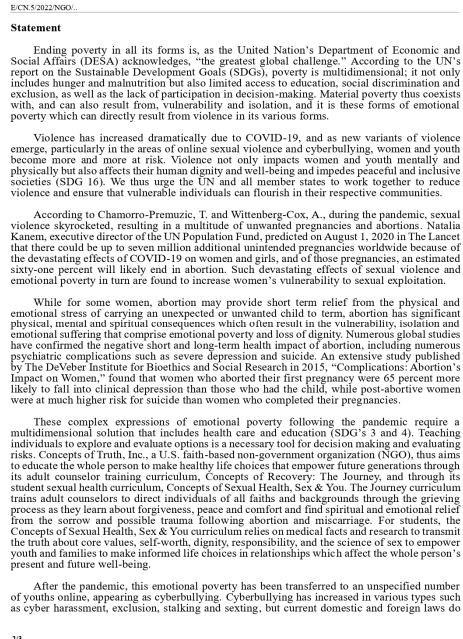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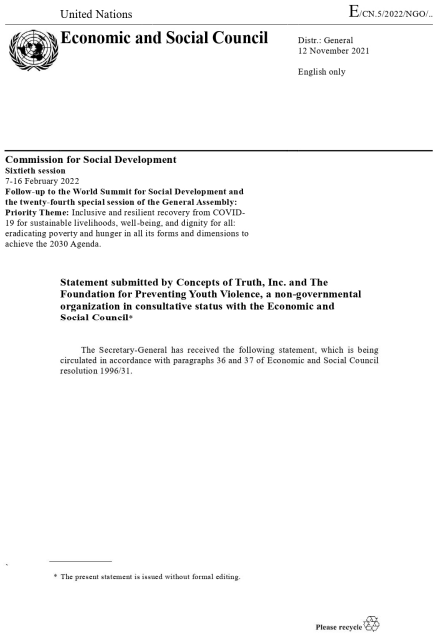
For more information on the Civil Society Forum, please visit: <https://nosocdev.org/what-we-do/commission-for-social-development/civil-society-forum-2023/>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spd/wp-content/uploads/sites/22/2023/01/CS-D-2023.pdf>

IASSW UN Team meets in New York
Five of IASSW's representatives to the UN in New York were able to meet in person on February 8 during the week of the Commission on Social Development. After 3 years of

2022년도 제60차 UN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 본회의 활동

사이드이벤트 개최	서면성명문 등재	구두성명문 연설	활동 리뷰 블로그
			

제60차 UN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 푸른나무재단 서면성명문 공식 등재



한국경제 학생기자, 2022년도 UN 청소년 대표단 참가후기 기사 보도

[생글기자 코너] 유엔 회의에서 청소년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 알려

입력 2022-03-07 10:00 수정 2022-03-09 10:00 지면 S21

지난달 9일 제60차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 본회의에선 '또 하나의 팬데믹, 사이버 폭력이 유발한 정서적 빈곤'을 주제로 행사가 열렸다. 청소년이 직접 사이버 폭력의 해법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행사였다.

지난달 9일 제60차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 본회의에선 '또 하나의 팬데믹, 사이버 폭력이 유발한 정서적 빈곤'을 주제로 한 부대행사가 열렸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더 심각해진 사이버 폭력으로 청소년들이 겪는 정서적 문제에 대한 해법과 예방책을 논의하기 위한 행사로, 푸른나무재단이 세계청소년연맹 아시아태평양장기부와 함께 주최했다.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제적인 협력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였다.

필자는 지난 1월 12일 유엔 청소년 대표단에 입단한 것을 시작으로 한 달 가까운 준비 기간을 거쳐 이번 행사에 참가했다. 행사 당일엔 패널리스트 발언할 기회도 얻었다. 이 기회를 활용해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영상으로만 하지 말고 학생들이 직접 학교 폭력 예방 연극을 한다든지 보다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이번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두 차례 회의를 거치고, 대본을 세 차례나 수정하는 등 많은 준비가 필요했다.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이 참석해 긴장됐지만 그만큼 뿌듯함도 느꼈다.



어른들만이 아니라 청소년이 직접 사이버 폭력의 해법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행사였다. 무엇보다 한국 청소년을 대표해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책과 예방책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점이 뜻깊게 생각한다. 비록 75분간의 짧은 행사였지만 이런 노력이 합쳐져 사이버 폭력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희망한다.

2021년도 제59차 UN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 본회의 활동

사이드이벤트 개최	서면성명문 등재	구두성명문 연설	활동 리뷰 블로그
			

제59차 UN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 푸른나무재단 서면성명문 공식 등재

United Nations E/CN.5/2021/NGO...



Economic and Social Council

Distr.: General
23 October 2020
English only

Statement

In term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aunched by the United Nations, the moment has come that the actual procedur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o eradicate and prevent cyber violence so as to pursue continuous happiness and peace for youths all around the world.

Cyber violence around the world has been on the rise steadily, while it is associated with one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or example, Quality Education(SDG4), Gender Equality(SDG5),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SDG16), and Partnerships for the Goals(SDG17), all of which are the main focus of the modern society.

It is needless to say we already take advantage of the advance of digital technology in numerous ways. There are more technologies that are utilized in social welfare, which enables the suffered ones to ease the accessibility to the technologies for them to be able to get universal benefits. However, there are a number of underlying problems to be dealt with. For instance, it has been noticed that digital technologies have caused side effects on youths who are vulnerable to every type of violence.

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
Fifty-ninth session
February 2021
Follow-up to the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and the twenty-fourth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priority Theme: Socially just transition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ole of digital technologies 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of all.

Statement submitted by Foundation for Preventing Youth Violence(FPYV),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The Secretary-General has received the following statement, which is being circula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36 and 37 of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 1996/31.

In short, we define this as 'Cyber violence.' 'Cyber violence' is a crime that the use of digital-communication tools makes another person feel intimidated physically or mentally by repetitively doing it on purpose. The types of cyber violence are as follows: Cyber verbal violence, Defamation, Stalking, Sexual violence, Bullying, and Information leakage and these frequently occur.

The reasons why youths are vulnerable to cyber violence are as follows.

Firstly, we do not teach or educate them on how to use this technology in the right ways whereas technology is evolving faster than ever before. There is a need for a new approach to making them be able to utilize digital technology to foster digital citizenship rather than just considering it as a problem itself.

Secondly, unexpected problems due to rapid changes caused by COVID-19 are directly passed onto youths. As of 2020, youths have been more exposed to cyber violence as online learning goes viral during the pandemic. Although there are many press reports saying, online learning contributes to reducing school violence, in fact, school violence changed into the form of cyber violence. Unfortunately, many parents are ignorant of their children who are leading or suffering from cyber violence.

Lastly, there is a limit to cope with this new violence through previous standards or laws related to previous school violence which makes this issue extremely hard to deal with. Also, it has been turned out that government regulation itself cannot successfully prevent ever-changing digital technology from having effects on someone in a negative manner.

Therefore, the Foundation for Preventing Youth Violence urges everyone to realize the seriousness of this issue, and we also suggest a number of solutions to settle the problems. The Foundation for Preventing Youth Violence(Blue Tree Foundation) is a youth organization that has been dealing with school violence issues for 25 years. It is the first found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which alerts how severe school violence can be to society and it was founded on the basis of preventing school violence and solving the related issues. In recent years, it takes the initiative in eliminating cyberbullying issues all around the world.

19-20517 (E) 291119
1920517



2/4

UN경제사회이사회 산하 UNSDN, 푸른나무재단 사이드이벤트 기사보도

Protecting and Advancing Health and Dignity for Youth & Families

Posted on May 10, 2021 | by [UNSDN](#) | 

Youth panelists from Concepts of Truth, NGO and [the Blue Tree Foundation](#) collaborated to discuss the benefits and harms of digital technology in the areas of sexual and mental health, education and maternal healthcare. Each panelist presented videos describing the work of their organization. Concepts of Truth provides sexual and mental health counseling, counselor training, reproductive loss recovery and sexual health education programs and resources along with an international 24/7 crisis intervention helpline. [The Blue Tree Foundation](#) (The Foundation for Preventing Youth Violence) NGO, is the first non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in South Korea](#) to raise awareness about, [prevent, and provide treatment for cyber violence](#).

Concepts of Truth's first youth panelist, Nevaeh Vazquez, introduced the topic of social media, its widespread use and benefits in building up communities but also its harmful effects on mental health. Youth panelists from [the Blue Tree Foundation](#) next addressed different aspects [of cyber violence](#): [Eunkyo Choi](#) discussed how youth violence has evolved in South Korea with advancements in digital technology and how that has affected youth's physical, mental and sexual health. [Blue Tree's](#) next panelist, [Seungmin Lee](#), discussed new trends in cyberbullying in Asia and their financial and mental harms. Finally, [Director of the Blue Tree Foundation, Jisang Lee](#), discussed the harmful effects of digital technology and its impact on cyber violence. Concepts of Truth concluded the program with its last two youth panelists, Rachel McKenna and Rebecca Tavitt. Rachel discussed the advances in digital technology and its salutary effect on maternal and natal health, and compared the physical and mental harms presented by the rise of virtual abortions. Rebecca explored the availability of sexual and mental health resources available online and suggested that member states should expand access to sexual health resources, particularly resources acknowledging the grief of miscarriage.

Recommendations:

[The Blue Tree Foundation](#) (The Foundation for Prevention Youth Violence), NGO calls on governments, private enterprise, schools and the local communities to combat cyber violence in all its forms, including cyber verbal violence, defamation, stalking, sexual violence, bullying, and information leakage. Concepts of Truth, Inc., NGO recommends that member states align with the four pillars of the Geneva Consensus Declaration to ensure (1) better health for women, (2) the preservation of human life, (3) the strengthening of family as the foundational unit of society, and (4) the protection of every nation's national sovereignty in global politics

Concepts of Truth, Inc., NGO had 87 zoom registrations, 59 event attendees, and over 600 views on our FB live page posting of the event. We also were very pleased to see that the post had reached over 700 people.



뉴욕 UN본부 내부 단체사진



UN 본부 외부 단체 사진



UN 사이드이벤트 사회자로 나선 청소년 대표단



UN 사이드이벤트 패널 발언하는 청소년 대표단



UN 사이드이벤트 개최현장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기관방문



ITU&WIPO 기관방문



론킴 뉴욕 주 하원 의원 미팅



UNDP 기관방문



뉴욕시청 청소년공동체개발부 기관방문



<사이드이벤트 연사로 나선 김정원>

처음 공고를 확인한 순간부터 ‘아 여긴 꼭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 항상 꿈에만 그리던 UN 을 직접 가 그 곳에서 직접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무대를 꿈꾸는 나에게는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기회 같았다. 시험기간이었지만, 밤을 새가며 서류를 준비했고, 기말고사 바로 전 날 모두가 말리던 면접을 치르고 난 후, 합격 문자를 받았을 때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던 마음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모의유엔이 아닌 실제 유엔을 나도 가게 되는구나,’ 하는 벅찬 감정이 드는 동시에, 정확히 어떤 것을 보고 배우게 될 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만 가득한 상태였지만, 뉴욕에서의 일정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깨달음과 소중한 인연을 안겨주었다.

첫 번째, 청소년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청소년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라는 나의 믿음에 박차를 가하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말로 유의미하구나,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독일 유엔 청소년 대표단과 나누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데, 그 친구가 한 말을 하나 언급하고자 한다. “We need more creation, and less consumption.” “우리는 더 많이 생산하고, 더 적게 소비해야 한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인데, 우리의 의지와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어진 틀에 맞추어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청소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두 번째, 가장 기억에 남는 유엔에서의 활동은 바로 저에게 새로운 시각들을 안겨준 다양한 사이드들이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 팀장님께서 “유엔을 더 가고 싶으면, 자유일정 대신 포함시켜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난다 그 때 당시에는 ‘유엔에서 재미라는 걸 느낄 수 있을까?’ 하며 의심했던 게 사실이지만, 우리 6명 모두 빠짐없이 사이드이벤트에 일종의 ‘재미’가 들렸고 서로의 관심사에 맞는 사이드이벤트들을 찾아 다녔다. 본회의와는 달리, 청중들 또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드이벤트의 특성 때문에 더욱 생생한 이야기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고, 내 관심사가 아니라 생각하고 거들떠도 보지 않던 분야들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사이드이벤트는 아니었지만, 여러 이벤트를 들으려고 했던 노력 덕분에 사우디아라비아 공주가 있는 고위급 회담에서 손을 떨며 질문을 해보기도 했다. 그러한 도전과 새로움은 나에게 항상 배움을 안겨주었기에, 이 프로그램 참여를 고민하며 이 글을 읽고 있거나, 차기 대표단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본인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최대로 활용하고, 이 활동을 통해 해보지 않았던 선택들을 내려 보라고 하고 싶다. 실패로 느껴지는 순간이 울지라도, 작은 변화라 느껴질지 몰라도 분명 돌아보면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되어있을 거다.

마지막으로, 뉴욕에서 있었던 5개의 기관 미팅을 언급하고자 한다. 가장 신기했던 점은, 한국에서는 평범한 입시생이었던 내가, 여기에서는 재단을 대표하고 있고, 디지털 빈곤과 폭력을 주제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태극기가 그려진 자켓을 입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엔 안에서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사소한 관심이 새로운 네트워킹으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네트워킹을 하는 순간들마다 그간 대표단으로서 했던 과제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설립이야기부터 재단의 목표와 비전, 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사이좋은디지털세상이나 푸른코끼리 사업에 대해서도 막힘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개인적으로 신기하면서도 뿌듯했다. 뉴욕시청 청소년공동체 개발부부터 주유엔 일본 대표부, 뉴욕주 하원의원 ron kim,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 뉴욕가정상담소, 그리고 뉴욕한국학교까지 뉴욕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과 미팅을 진행하면서 한국을 살아가는 청소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재단의 이야기를 알렸고, 연결점과 접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은 저에게 또다른 ‘새로움’과 ‘깨달음’이었다.

이 모든 새로움을 두려움없이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대표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 숨막히게

어색했던 발대식을 지나 매주 만나며 조금씩 친해졌고, 밥도 같이 먹고 놀러도 가면서 뉴욕 일정을 준비해갔던 과정들이 기억에 난다. 뉴욕에 가서는 아침도 같이, 점심도 같이, 저녁도 같이, 심지어는 일일평가가 끝나고도 쏟아지는 피곤을 참아가며 매일 모여 수다를 떨면서 '어떻게 이런 좋은 사람들만 모아놨지' 싶을 정도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의 과제 피드백 시간부터 뉴욕에서의 일일 피드백 시간까지 서로의 시각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기에, 우리 모든 대표단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차기 대표단들에게는, 더 풍성하고 즐거운 뉴욕 일정을 위해서는 꼭 대표단끼리 친분을 쌓으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 나는 대표단 언니, 오빠, 친구, 동생들 덕분에 12일 내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웃고 떠드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 꿈에 대한 확신과 응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잊지 못할 근 3달을 선물해 준 모든 대표단과 푸른나무재단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함의 마음을 전한다.



<사이드이벤트 연사로 나선 이정인>

이번 UN 청소년 대표단 활동은 단순히 UN을 다녀오는 활동에서 끝나는 활동이 아니었다. 물론 제62차 UN경제사회이사회 사이드이벤트 개최는 아무나 할 수 없는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다. 나와는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것 같은 UN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노력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다. 연사들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 다른 나라 청소년 대표단들과의 만남, 그리고 UN에서 있었던 모든 만남에서 우리 재단의 사이드이벤트를 홍보하며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알릴 수 있었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사이드이벤트에 연사로 참여하게 되어 피피티와 대본을 준비하면서 긴장을 했지만, 대표단들과 선생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공적인 사이드이벤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뉴욕 일정 전에 있었던 수많은 사전 모임을 통한 과제를 제출하고 피드백 받는 과정, 그리고 서로와 친해질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다.

가장 인상 깊었던 일정은 UN에서의 시간이다. 나는 뉴욕을 가기 전에 솔직히 내가 UN에 가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 사이드이벤트라는 특정 목적이 있어서 가는 것이긴 하지만 단순히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무언가를 얻고 가야 한다는 부담감을 스스로 조금 준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정하지 못한 채 UN 일정들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참여를 했다. Housing, homelessness 문제, small arms, family business, ICT에서의 사이버 범죄, 빈곤 근절과 같이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사이드이벤트를 참여하고 들으면서 각국이나 단체 대표의 의견에 대해 들으며 주제들에 대한 흥미가 생기는 시간이었다.

가끔은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했지만, UN에서 모두가 의견을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나에게 유익했다. 사이드이벤트를 듣다가 내 생각이나 관심사에 맞는 사람의 이야기가 딱 들릴 때가 있다. 그 사람의 말을 자세히 듣고 경청하고 필기하다가 모든 회의가 끝난 후 모두가 일어서서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짧은 몇 분이 나는 UN의 매력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이 장소야말로 모든 국가의 사람들을 만나고 공통된 분야에 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라는 것을 배웠다. 청소년의 입장으로만 할 수 있는 경험을 하고, 많은 장점도 있었지만 동시에 많은 제한도 느낀 것 같다. 그래서 꼭 다시 나중에 더 확고한 꿈이나 목표, 진로를 갖고 다시 방문하고 싶다.

이번 일정의 핵심은 UN에서의 사이드이벤트 개최와 일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대표단 활동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대표단 6명과 선생님들과의 관계, UN과 전문가 미팅에서 만나고 얘기했던 사람, 하루 일정이 끝나고 모두가 나누었던 하루에 대한 소감, 이 바쁜 일정 속에서 대표단들이 직접 가이드를 한 문화체험까지 얻은 추억과 경험이 너무 많다. 이 모든 일정을 소화하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지만 가끔은 잘 안되고 힘들 때도 많았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지원을 통해 다시 열정 넘치는 태도를 보이게 해주었고 모든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니 드는 생각은 활동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중요함인 것 같다. 뉴욕에서 만난 사람들, 잠깐 스쳐 지나간 모든 인연부터 같이 활동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까지 너무 중요했다.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많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 사람들과 나누었던 대화, 크고 작은 상호 작용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준 것 같다. 평소에는 너무 익숙한

환경과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있으니 안정과 편안함을 느꼈다면 대표단, 선생님들, 연사들, 미국 학생들,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모든 사람의 배경과 진정한 속마음, 그리고 의견들을 들으니 과연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묻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묻게 되었다. 물론 앞으로 계속 답변해나갈 질문이지만 평소에 고려하지 못한 나의 의견과 생각들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내가 하는 말이나 생각들이 남들이 원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지 나는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가 무엇이고 이 목표를 자신 있게 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이런 생각들은 만났던 모든 사람이 있었기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결론인 것 같다. 전과는 다르게 더 건강하고 강한 정신력 갖게 된 것 같다.

미래 대표단들에게 이 활동에 대해 말을 하자면 단순히 UN에 갔다 오는 활동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UN을 포함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온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번 일정 동안, Try to make the most out of what you have라는 말을 항상 염두에 두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다. 보고 느끼는 것을 간단하게 적어 놓고 나중에 다시 읽으면 거기서 느끼는 배움과 깨달음은 어디에서도 얻지 못할 것들이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며 대표단 활동에 참여 하면 많은 도움이 되고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 UN 청소년 대표단 활동은 단순히 UN을 다녀오는 활동에서 끝나는 활동이 아니었다. 내가 스스로 성장할 기회였고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뀐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만난 우리 6명의 대표단은 평생 잊지 못할 인연이 된 것 같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었으면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대표단 모두에게 너무 고맙고 이번 일정을 같이 함께해주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모든 활동과 일정을 준비해주신 재단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 UN 사이드이벤트 홍보 및 개최, 다른 사이드이벤트 관람, 전문가 미팅 참여, 문화체험, 대표단과 선생님들과의 대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배움을 얻었고 하나하나가 앞으로 나아갈 발판이 되어주었다. 이런 기회를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매우 귀한 것 같고 이 기회를 나에게 준 푸른나무재단에게 감사하다.

이 활동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끝맺음을 잘 지어야 다음에 또 기회가 오고 더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다음에도 꼭 다시 경험하고 싶은 잊지 못할 시간이었다. 푸른나무재단 UN 청소년 대표단 화이팅!

2023년도 UN 청소년 대표단 활동 사진 및 후기



출국장



UN 출입증 발급 및 UN 본회의장 방문



UN 본회의의 시민사회포럼 참석



UN 본회의의 고위급회담 참석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방문 및 대사님 미팅



글로벌 네트워킹 및 전략회의



주유엔 포르투갈 대표부 주최 사이드이벤트 참여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서기관과 식사

“2년 연속 참가할 만큼 UN에서 세상을 향한 꿈을 꿀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

이승은 / 청심국제고등학교 2



<청소년 대표 연사로서 발언하는 이승은> 2023 UN 청소년 대표단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세계 정말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활동을 하였지만, 이번에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직접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더욱 설레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 활동과 진행방식과 준비과정에 있어 다른 점도 많았지만 그래서인지 더 재미있었습니다. 정말 유엔에 간다는 사실과 실제 방문했을 때 현장의 분위기, 그리고 모두 함께 작성했던 과제, 주고받았던 피드백, 수백번의 수정과정을 거쳐 꾸준히 노력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만큼 우리 모두의 힘이 모여서 의미있는 대본과 피피티가 완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번에도 연사로 선발이 되어 유엔 현장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디지털 웰빙 구축방안,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한 교육 보급"에 대한 연설을 하는 것은 매우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의 글로벌 인재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이를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푸른나무재단이 주최하는 사이드이벤트를 개최하고, 성명문을 제출하여 국제사회에서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부간 기관이 다루지 않는 사회 문제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UN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CSocD)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10박 12일 동안의 일정 중에서는 주말을 제외한 주중에는 유엔본부를 방문하여 본회의와 여러 사이드이벤트, 포럼 등을 듣고 교류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도 푸른나무재단 측에서는 다양한 국제 교류와 문화 체험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여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 덕분에 주말에도 알차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뉴욕 현장에서 함께 밤을 지새고 사이드이벤트를 준비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재밌는 문화 활동들을 한 슬아, 빈이, 경훈이, 서아 그리고 이지상 팀장님, 김승연 연구원님, 이종익 사무총장님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UN 청소년 대표단 활동을 2년 연속 참여하고 청소년 연사로 직접 참여하고 경험한 입장으로서는, 푸른나무재단의 UN 청소년 대표단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되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꼭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추천하고 싶고, 다음에 기회가 또 된다면 푸른나무재단과의 인연을 이어가 대학생이 된 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여 UN 청소년 대표단 활동과 사업 개발에 조력하고 싶습니다.



<사이드이벤트 사회자 이슬아>

벼룩을 뚜껑이 있는 병에 넣은 후 시간이 지나 그 뚜껑을 열면 그 벼룩은 다시 뚜껑 높이 이상으로 뛰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표단으로서 뉴욕에 가기 전 저의 모습은 마치 이 벼룩과도 같았습니다. 큰 꿈을 꾸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지만, 예전의 저는 제 환경을 탓하고 이와 타협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고 살았던 제게 UN 청소년 대표단으로서의 활동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열일곱이라는 어린 나이에 UN headquarter에서의 사이드이벤트 사회자로 국제무대에 선다는 것. 각국 수장들, 국제기구 임원들이 모여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나가는 자리에서 내 능력과 기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감히 상상도 못했던 뚜껑 밖의 이야기였죠. 하지만, 지금 저는 뚜껑의 높이보다 훨씬 높은 10,000미터의 상공을 날아 더 큰 세상으로 스스로를 이끌었고, 푸른나무재단 UN 청소년 대표단 활동을 통해 개인적 차원으로, 사회적 차원으로 긍정적인 발전을 이끌어 낸 영향력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한걸음 더 성장하였습니다.

뉴욕에서 저는 정말 많은 인연을 쌓고 돌아왔습니다. 처음 유엔 본회의장에 들어가본 날, 옆자리에게 코를 골며 주무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그저 재미있는 해프닝으로 웃고 넘겼던 상황이었죠. 그 이후, 유엔 내에서 그분을 마주치며 종종 인사를 나누다가 푸른나무재단 사이드이벤트에도 참석하신 것을 보고 감사한 마음에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이드이벤트를 마친 후 본회의장에 다시 참석했을 때, 그분은 제 옆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분께 “Someday when I get older, I really want to be here just like you.”라고 말씀드렸더니, “I’m sure you WILL be here. I started like you, and now, I’m here! It’s definitely not easy, but remember. I’ll always be here for you.”라고 미소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낯선이에게서는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분의 진심 섞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몽클합니다. 뉴욕에서 돌아온 이후의 저는 삶은 보다 더 스스로를, 도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그분처럼 누군가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어른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푸른나무재단 UN 청소년 대표단 활동이 제게 단순히 유엔에서의 사이드이벤트, 그리고 국제무대 커리어 정도의 경험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이드이벤트를 준비하면서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아주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힘쓰는 동안,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동안, 대표단인 저의 삶에도, 마음에도, 가치관에도 이 활동은 절대 꺼지지 않을 하나의 따뜻한 불씨로 남아 영원히 제 마음을 안아주고 치료해줄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푸른나무재단의 UN 청소년 대표단을 사랑한 만큼, UN 청소년 대표단이 저에게 준 사랑만큼, 우리 사회에 푸른나무재단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은, 만들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은 그 끝이 없음을 알기에, 앞으로의 푸른나무재단과 UN 청소년 대표단의 모든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푸른나무재단 파이팅!!



"청소년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자리"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폭력 유형인 사이버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의 발언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저희의 가치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승은, 청심국제고등학교 1)



"모든 사람들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꿈"

UN청소년대표단으로 회의를 준비하고 대본을 작성해 UN사이드이벤트를 준비하며 사이버폭력이라는 심각한 문제와 대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참여과정이 굉장히 의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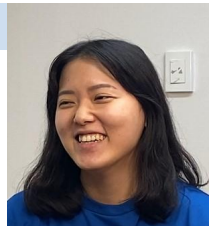
(홍서윤, 청심국제고등학교 1)



"모든 참여 과정이 의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대표단으로 팀원들과 함께 UN 성명문을 작성하고 연구원님들과 소통하며 공동 작업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사이버폭력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송다영, 동덕여자대학교 1)



"NGO와 여러 국제기구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

UN청소년 대표단 활동을 통해 사이버폭력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UN본회의에 참석 이후 여러 NGO와 UN 회원국의 다양한 관점과 생각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 그들과 더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승아, 서울외국인학교 11)



"2년 연속 참가할 만큼 UN에서 세상을 향한 꿈을 꿀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

청소년이 직접 사이버 폭력의 해법을 논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홍보 영상 등 청소년이 다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 전 세계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재현, 이대부속고등학교 1)



제출서류 양식

지원서

1. 인적사항

사 진 (3 x 4) 6개월이내 촬영원본 *AI 보정사진 금지	국문성명	여권상 성명	영문성명	여권상 성명
	생년월일		국 적	
	이 메 일		휴 대 폰	
	여권만료일	만료 6개월 미만 시 사전 준비 필요	비 자	최근 2년 이내 ESTA 비자 발급자는 유효기간 작성
현 주소	실제 거주 주소 작성			

2. 학교 및 어학 정보

학교/전공		학년(학기)	졸업자는 "졸업" 휴학자는 "휴학" 표시		
영어능력	공인영어성적	자기평가			
	ex) TOEIC 900	듣기 0~5점	말하기 0~5점	읽기 0~5점	쓰기 0~5점
제2외국어	공인외국어성적	자기평가			
	ex) HSK 4급	듣기 0~5점	말하기 0~5점	읽기 0~5점	쓰기 0~5점
자격증	자격증명	등급	발행처	취득일자	
	현장체험학습안전지도사	1급	한국안전교육진흥회	2024.01.01	

3. 활동경력 (활동구분: ①동아리, ②봉사활동, ③학생회, ④아르바이트, ⑤수상, ⑥인턴활동, ⑦기타)

기간	활동 기관명	활동내용 및 역할	활동구분
2024.01.01. ~2024.06.30.			해당번호 기입

4. SNS 활동정보 (보유계정 URL 주소 첨부, 제작 영상물 있을 시 함께 링크 첨부)

블로그	URL 기입
인스타그램	URL 기입
페이스북	URL 기입
유튜브	URL 기입

* 필요시 칸 추가하여 작성

자기소개서

1. 친구들이 본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작성해 주세요. (500자 내외)

2. 최근 친구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 중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특별한 사건은 무엇인가요? (500자 내외)

3. UN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 63차 본회의 주제와 청소년 사이버폭력 문제를 어떻게 연결하여 어떤 주제로 연설할 수 있을지 참신한 아이디어를 작성해 주세요. (1,000자 내외)

4. 대표단 활동 기간 중 본인의 주요 개인 일정을 모두 작성해 주세요.

시험기간	2024.12.17(화) ~ 2024.12.20(금)
방학기간	
그 외 개인일정	

5. 서류합격 시 12월 7일(토) 대면면접에 참여 가능한 시간대를 모두 체크해주세요.

- 09:00 ~ 10:00
 10:00 ~ 11:00
 11:00 ~ 12:00
 13:00 ~ 14:00
 14:00 ~ 15:00
 15:00 ~ 16:00
 16:00 ~ 17:00
 17:00 ~ 18:00

※ 체크해 주신 일정으로 면접 시간을 배치할 예정이나 원하시는 시간으로 배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5년도 UN 청소년 대표단 서약서

「푸른나무재단 UN 청소년 대표단」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동의를 구하오니 충분히 검토하시고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나무재단 UN 청소년 대표단」 참여자 홍길동 는(은) 대표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 교육 및 준비기간, 회의기간, 사후활동 일정 등에 모두 충실히 참여하겠으며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2025년도 UN 청소년 대표단 공고문에 안내된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위 본인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지원했음을 확인합니다.
2. 위 본인은 대표단 활동 참가자로서 주최 측인 푸른나무재단의 지도에 따라 모든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푸른나무재단 대표단의 취지에 동의하며 푸른나무재단 UN 청소년 대표단 활동을 통해 나 스스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고 인성을 겸비한 K-리더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본인은 특별한 사유에 따라 참여가 어려울 시 푸른나무재단과 반드시 사전 협의 하며, 특별한 협의 없이 사전교육 및 준비기간에 불성실하거나, 대표단의 단체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본 대표단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5. 부득이 위 2호의 사유로 참가자에서 제외 되거나 기타 개인 사정으로 대표단 활동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이 불가하며, 이미 지출된 비용과 위약금 등 관련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6. 대표단 활동 및 그 외 모든 사항과 관련하여 “본인”의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여하한 재해 및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 되는 분실물에 대하여 주최, 주관, 지도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7. 위 본인은 푸른나무재단 UN 청소년 대표단 활동에 참여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서약하며, 만약 거짓을 경우 대표단 활동을 즉시 종료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현재까지 어떠한 폭력에도 가담하지 않았음에 결백합니다.
하나,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나는 폭력을 방관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이 있을 시, 푸른나무재단의 조치를 따를 것을 다짐하며 서명합니다.

※ 반드시 자필로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 만19세 미만 지원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반드시 함께 필요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푸른나무재단 이사장 귀하

개인정보, 초상권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목적	▶ 대표단 모집 및 선발, 운영 및 프로그램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 ▶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기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집항목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본인 및 보호자 연락처, 전공 및 학년(학기), 영어 등 ▶ 선택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지원서 등에 제공한 정보 - 사진/영상저작물, 관심분야, 자격증, 활동경력, SNS활동 정보, 자기소개 등 정보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와 초상권은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모집절차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모집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대표단 활동, 차회 UN 청소년 대표단 선발 홍보 등 후속 작업을 위해 활동 종료 후 3년간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선발심사를 위하여 필수적 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제63차 UN경제사회이사회 사회개발위원회 푸른나무 재단 UN 청소년 대표단 선발심사 및 활동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한 후 본인이 기재·제출한 선택적 정보에 대해서는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사랑의열매, 삼성글로벌리서치,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현지 기관방문 활동지	월/분기/연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력	소속, 기타 신청을 위해 본인이 작성한 관련 정보 등	제공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제공 후 3년 또는 삭제 요청 시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UN 청소년 대표단에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본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반드시 자필로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 ※ 만19세 미만 지원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반드시 함께 필요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푸른나무재단 이사장 귀하